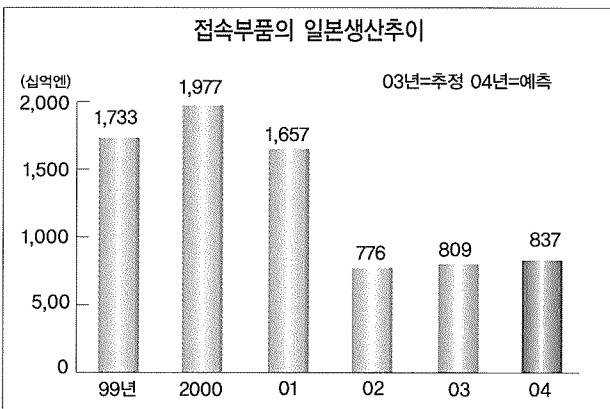


2004 일본 접속/변환부품 시장 동향

편집실

2004년 접속부품 및 변환부품의 일본생산은 치열한 비용경쟁에 대응한 중국생산이동이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접속부품은 '미증', 변환부품은 '속락'이 예측된다. 이런 와중에, 일본생산은 '신3종의 신기(神器)'를 비롯한 디지털가전이나 고기능휴대전화, 카일렉트로닉스 관련 등 고부가가치분야로 확대가 기대된다.

접속부품



* 2001년까지는 전자회로기판을 포함한 금액
* 2002년까지는 일본경제산업성 통계, 2003년 추정과 예상은 JEITA

접속부품의 일본생산은 1994년부터 4년 연속으로 성장했다. 98년은 하락했지만 99년은 다시 두자리수 성장을 기록했다. 휴대전화의 급격한 확대와 인터넷보급에 따른 PC 페리페럴 관련이나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를 포함한 IT시장확대를 배경으로 구미나 동남아시아의 수출도 크게 증가했다.

그렇지만, 2000년 가을 이후, 부품의 과잉재고 문제나 미국 경기감축의 영향으로 부품수요가 저조해 '01년은 장기에 걸친 조정국면을 지속하게 되었다. 접속부품도 '01년의 일본생산액은 전년대비 두자리수 감소가 되었다.

그러나, '02년에 들어서자 긴 조정국면을 끝내고 드디어 재고의 적정화가 이뤄져 봄 이후 생산이 상향되어 '02

년 전반기는 비교적 견실히 추이했다. 그러나, 후반기에 들어서자 통신인프라나 산업기기를 비롯해 많은 분야에서 수요가 저조해 '02년의 접속부품 일본생산은 전년대비 95.1%인 7,760억 4,100만엔으로 감소했다.

JEITA가 2003년 12월에 발표한 '03년 일본국내접속부품생산액(추정)은 토탈 전년대비 104.3%인 8,093억 7,000만엔으로 증가로 돌아섰다.

품목별로는 커넥터는 전년대비 104.9%로 2년 연속 확대되었다. 2003년 전반기는 사스 등의 영향으로 완만한 성장이었지만 후반기에는 휴대전화의 컬러화나 카메라탑재형의 본격보급, 디지털카메라, DVD 등의 본격적인 활성화나 자동차 차재기 등의 수요가 호조로 추이했기 때문이다.

스위치는 전년대비 90.0%로 3년 연속 마이너스를 추정한다. 이것은 후반기에 디지털관련기구나 디스플레이 관계가 늘었지만 해외생산이동이 진전되는 가운데 전반기에 사스 등의 영향을 받은 것이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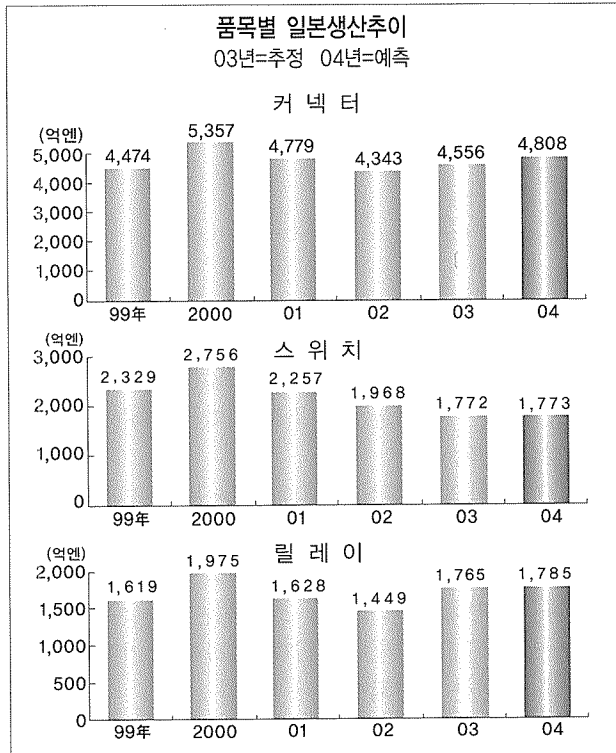
한편, '04년의 일본생산전망은 접속부품 전체로는 전년대비 103.4%인 8,366억엔을 예상하고 있다.

커넥터는 전년대비 105.5%인 4,808억엔을 예측. 디지털 AV기기용이나 자동차차재용, 제3세대 휴대단말이나 통신인프라에다 무선LAN탑재의 정보기기, 산업기기용의 수요를 기대하고 있다. 스위치는 동 100.1%인 1,773억엔을 예측했다. 이것은 해외생산이동이 더욱 진전되어 아웃-아웃이 증대되지만 일본생산은 일본설비투자의 회복경향에 따른 산업기계관련의 수요증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접속부품업체의 해외생산체제 증강의 움직임은 앞으로도 가속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엔 중국으로의 대형공장 건설이나 기존 공장확장 등 중국 생산체제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생산량 전체의 절반 이상을 해외 생산으로 이행하는 업체도 적지 않다.

동시에 이용자의 단납기 요구나 세계적인 가격경쟁심

화 등을 배경으로 해외공장의 직접생산가동이나 원자재의 현지조달을 향상, 모듈화 등에 주력한다. 설계·개발이나 마케팅면에서의 글로벌체제 강화의 움직임도 더 한층 가속될 전망이다.



*2001년까지는 전자회로기판을 포함한 금액
*2002년까지는 일본경제산업성 통계, 2003년 추정과 예상은 JEITA

변환부품

소형모터나 스피커, 자기헤드 등의 변환부품의 일본생산은 해외생산 이동으로 1990년대 초기부터 감소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97년에는 일시 생산이 반전되었지만 98년 이후는 다시 감소로 전환해 현재도 그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2003년 변환부품의 일본생산은 JEITA의 예측에 따르면 전년대비 86.2%인 1,014억엔으로 두자리수 감소될 것으로 추정한다.

음향부품은 일본자동차업체의 차재용 스피커가 해외생산화됨으로써 동 94.2%가 예상되고 자기헤드는 동 79.5%가 될 전망이다. 이것은 AV용 헤드는 디지털화가 진행되어 감소, HDD용 헤드는 PC의 생산회복, 게임, AV로의 탑재확대로 해외생산은 증가하더라도 일본생산은 감소되기 때문이다. 소형모터는 동 90.1%로 예상되었다. 이것은 OA기기를 포함해 해외생산이관이 급속도로 진행될 듯 하다.

한편, 2004년의 일본생산전망에서도 변환부품은 전년 대비 91.8%로 마이너스를 예측했다. 음향부품은 해외생

산이 더욱 진행되기 때문에 동 91.3%로 예측. 자기헤드는 동 93.7%로 예상했다. 이것은 AV용 헤드와 HDD용 헤드시장에 양극화되어 AV용 헤드는 디지털화에 따른 규모축소 및 일본 생산의 감소, HDD용 헤드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건설할 것이 예측되지만 해외생산이 이동됨에 따라 일본생산은 축소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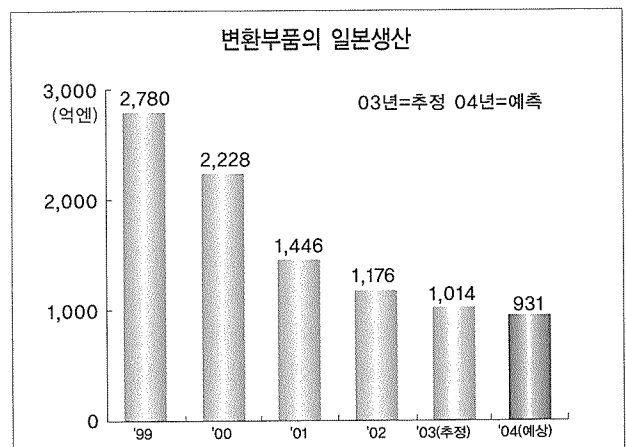
한편, 변환부품업체의 글로벌생산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접속부품이상으로 변환부품은 소형모터나 스피커를 중심으로 높은 해외생산비율을 기록, 이미 생산의 전량을 해외에 이관하고 있는 업체도 적지 않다. 앞으로는 해외공장에서의 수직가동이나 부재 현지조달을 향상, 현지 설계·개발기능의 확충 등, 보다 글로벌화가 진전될 전망이다.

변환부품의 제품개발면에서는 HDD용 GMR(거대자기저항)헤드의 기술혁신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HDD의 대용량화에 따라 HDD에 사용되는 자기헤드에 대한 기록밀도향상 요구도 매년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GMR헤드 각 업체는 구조 개선에 의한 고밀도화의 추구나 제품수율향상, 저비용화의 추구 등을 포인트로, 적극적인 경영자원의 투입을 도모함과 동시에 장래의 1테라비트/평방미터 등의 요구에 대응하는 신형헤드의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소형모터는 전자부품 중에서도 가장 해외생산비율이 높은 제품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이 대형, 전문업체이고, 전량 또는 90% 이상을 해외, 특히 중국·ASEAN지역에서 생산하게 되었다. 일본생산은 산업기기용이나 고급품, 특수품, 소로트/단납기품으로 한정된 업체가 많지만 이들의 산업기기용이나 고급품에 대해서도 해외이동이 진행되는 경향에 있다.

일본생산은 자기에너지에 의한 비접촉구조의 자기(磁氣)축수모터나 자동차전장, 의료기용 모터 등에서 생산확대가 기대된다. ●



*2001년까지는 전자회로기판을 포함한 금액
*2002년까지는 일본경제산업성 통계, 2003년 추정과 예상은 JEITA